



박노황 경영진이 만든 '늙어가는' 연합뉴스 편집국 내년 기준 20대 기자는 국문·영문·다국어 각 1명뿐 연합뉴스 기자 3명 중 2명은 40대 이상

연합뉴스 편집국이 늙어가고 있다.

뉴스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소식을 타전해야 할 연합뉴스 기자들이 점차 나이들어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조사한 결과 한 달여 뒤 2018년이 되면 기자직 가운데 (한국 나이 기준) 20대는 국문·영문·다국어 각 1명씩밖에 남지 않는다.

특히 지역취재본부는 내년에 20대가 완전히 사라진다. 심지어 '막내' 기자가 이미 30대 중반인 취재본부도 있고, 다른 본부 막내들도 상당수가 내년에 30대 중반으로 접어든다.

이는 박노황 경영진이 회사 미래를 짊어져야 할 수습사원을 3년 내내 단 한 차례도 뽑지 않았던 탓이 가장 크다.

경영진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수별 성명이 두려웠는지 수습기자를 뽑지 않았고, 노조는 물

론 상당수 보직 간부들까지 수습을 뽑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습기자를 뽑으려면 기자직 사원간 임금 차별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 신연봉제를 노조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놔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 크기인 임원 보수한도는 9억원에서 13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달 7일 기준 기자직 직원 587명 중 만 40세 이상은 380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기자 3명 중 2명은 40대 이상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40대 이상 비중 60.4%와 견줘 약 4.3%p 오른 수치다.

본사의 40대 이상 비중은 지난해 6월 58.6%에서 6%p 오른 64.6%를 기록했다.

지역취재본부의 40대 이상 비중은 65.4%였지만, 본부별로 편차가 컸다. 강원이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경북(78.6%), 부산(75%), 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이상 66.7%) 등 순이었다. 40대 이상 비중이 절반 미만인 취재본부는 한 곳도 없었다.

20대 기자가 사라지고 3년째 수습사원을 뽑지 않은 여파로 짧게는 3년째, 길게는 7년째 막내 생활을 계속하는 사례도 나온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20대 때와 다르없이, 오히려 더 자주 밤샘 근무와 야근을 하고 막내급 기자로 씬 없이 뛰는 생활은 결국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합뉴스지부가 접촉한 20, 30대 기자직 조합원 상당수가 불면증과 피로를 호소했다.

특히 지리적 취재영역이 넓어 직접 자동차를 몰아 사건 현장에 가야 하고, 글기사와 사진기사와 부담을 모두 떠안은 지역취재본부의 저연차 기자들은 수년째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다.

2면에 계속

"박노황은 물러나라!" 조합원들 텐트 난중일기

2일째, 이용석 부위원장이 얻은 교훈

- 밤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일찌감치 불 끄고 자지 않으면 다음날 수면부족에 시달린다는 것.

- 텐트 안에서 떠드는 소리는, 로비에 사람이 없으면 텐트 밖에서 매우 잘 들림.

내 말이 그 말~

4일째, 김남권 교육부장
노재현 복지부장

- 5년여 만에 다시 텐트에서 자게 될 줄이야. 이번 텐트 투쟁이 부디 마지막이었음 좋겠음. ▶ 그땐 그랬지..

- 동계캠핑을 회사 로비에서 할 줄은 생각 못했는데 이런 값진 경험을...

++ 캠핑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은 언제든 사무처장에게 연락주세요!



중요 건강정보!

5일째, 김상민 비대위원

- 텐트 안에 계속 앉아 있으면 소화가 안 된다. 로비에서 맨손체조!

- 우려했던 사측 철거반은 나타나지 않았다.

4일 연속 당직...닷새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텐트를 지킨다

6일째, 노승혁 부위원장

- 가는 날이 장날. 안국역에 내려보니 트럼프 방한에 차벽과 쫓불 등장.

- 21:30. 양정우 비대위원이 양손에 야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부인 생각해 보내려 했지만 텐트에 따리를 들었다. 화장실 다녀오니 텐트 앞에 누가 나오기에 봤더니 오정훈 선배. (...결국 위원장까지 4명이 엉겨 잤다.)

이야기꽃이 활~짝

7일째, 고미혜 여성부장
이 울 비대위원

- 야근인 차지연씨가 와서 이야기꽃. 공병설&장용훈 선배 지나다 격려말씀. 퇴근하던 최윤정 선배와 이야기꽃.

- 밤에 천둥소리 같은 소음. 귀마개 매우 필요

의견 반영해
세팅 완료!!



3면에 계속

경영진 책임 묻는 '공정보도 텐트' 3주째 순항중 낮에는 노조 사무실·공식 회의실...저녁엔 동료간 '정 나눔터'

오전 6시50분께 이주영 노조위원장이 본사 1층 로비 한쪽에 자리한 '공정보도 텐트'로 향한다. 불편한 잠자리에서 밤을 보낸 조합원들이 그를 맞이한다. 아침 공기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진다. 조합원들이 출근을 위해 서둘러 자리를 뜨면 이 위원장은 텐트 앞 날짜표시판에 하나 더해진 숫자가 적힌 종이를 붙인다. "박노황 경영진 퇴진 요구 농성 19일째"

공정보도 텐트는 이달 2일 들어섰다. 그동안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공정보도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대의원, 일반 조합원들까지 30여 명이 이곳에서 온밤을 보냈다. 주말 낮 텐트를 지키 조합원을 더하면 그 수는 40명을 넘는다.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낮 시간대 텐트는 이주영 위원장이 지킨다. 이 위원장의 퇴근시간은 밤 당번 조합원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혹 오기로 했던 당번 조합원이 급한 업무가 생겨 핑크를 내면 이 위원장의 특별 야근이 시작된다.

시일이 지날수록 텐트는 단순한 농성장이라 아니라 조합원들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1, 3면: 조합원들의 난중일기) 텐트 밤 당번이 아닌 후배 조합원이 선배를 위해 치킨, 아이스크림을 들고 방문해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밤 당번 후배를 위해 선배가 피자를 배달시켜 애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훈훈한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밤이 시작될 때 당번이 분명 2명이었건만 이튿날 아침 텐트 문을 열어보면 남성 조합원 4~5명이 누워있는, 열피다 못해 어쩐지 잔내 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비조합원들도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마음을 보내고 있다. 16일 밤 텐트를 지키 김보경 국제경제부 대의원은 당번일지에 "텐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미안해하는 부장 이상 선배들이 꽤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회사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겠지요"라고 썼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윤석빈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배성재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장을 비롯한 타 지본부장들도 비타민음료, 초콜릿 등을 건네며 지지·응원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공문을 2차례 보냈다. 텐트를 친 바로 다음 날인 3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면서 "1층 로비 점거를 지속한다면 새로운 입주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박노황 사장 명의로 공문이 텐트에 도착했다. 단협 위반으로 야심차게 임기를 시작했던 경영진이, 기존 입주사가 빠진 빈자리를 채워넣는 경영능력을 반년째 보여주지 못한 경영진이 주장하기엔 여러모로 적반하장인 내용이였다.

10일에는 "연합뉴스TV에서 로비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공문을 보내왔다"며 "입주사 의사에 반해 1층 로비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공문을 역시 박노황 사장 명의로 전했다. 이에 이주영 위원장은 곧바로 12층 임원실 공간에 올라가 "박노황 연합뉴스TV 사장이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에게 보내는 셀프 공문인가, 아니면 박노황 사장의 지휘를 받는 김영미 TV전무가 박노황 사장에게 보내는 내부 공문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위) 텐트 7일째 밤을 즐겁게 보내는 이울 비대위원과 고미혜 여성부장. (가운데 왼쪽) 공정보도위원회 10월 정례회의는 텐트에서 이뤄졌다. (가운데 오른쪽) 참글상 수상자인 한상균 조합원이 임화성 공보위 간사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전달받고 있다. (아래) 텐트 농성 3일째 밤을 독서로 밝히는 공병설 비대위원.

☞ 1면에 이어

만 3년째 수습사원을 뽑지 않은 경영진은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퇴직한 촉탁 선배들로 메우고 있지만,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은 고스란히 막내들의 몫이기 때문에 일은 점점 늘어만 간다.

취재본부의 한 조합원은 "이전에는 조근을 하고 나서도 생생한 정신을 유지했지만, 언제부턴가 낮에 잠시 쪽잠이라도 자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밤을 새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잠을 청해도 피곤하기만 할 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간신히 잠이 든 뒤에도 조그만 소리에 깜짝 놀라 깨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20대 기자의 부재는 연합뉴스 기사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젊은 감각과 관점으로 20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본사의 한 조합원은 "가끔씩 등장하는 소위 '꼰대' 같은 기사도 20대가 사라지고 회사가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층들이 연합뉴스를 버리면 연합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조합원은 "회사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 젊은이들의 뉴스소비 패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포털 조회수에 목 매고 '스타 기자'가 돼야 한다며 기자 페이지를 만들라고 하면서 정작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했다고 징계하는 모양새가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박노황 사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연합뉴스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연합뉴스의 경쟁력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아집 때문에 '연합뉴스의 취재 경쟁력'은 나이 들고 있다. 연합뉴스는 노목(老木)이 되고 있다.

☞ 1면에 이어

**선후배 덕에 배~부른 공정정보도 캠핑
8일째, 고흥규+장용훈 비대위원**

19:30 백나리 조합원이 보낸 BBQ 양념반 후라이드반 치킨 도착
21:00 이정진 조합원 풀바셋 아이스크림 공수.
21:30 문관현 조합원 병원용 음료수 1상자 전달
19:00~23:00 모기 10여 마리 일망타진 (미션 클린!)
익일 6:00 김효정 조합원 바나나와 사과즙 공수.



치킨은 사랑입니다
동료들도 사랑입니다

**공정정보도 투쟁을 위해 반휴도 반납!
9일째, 이재림 지방부장**

10일 오후 4시 32분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전날 당직 근무로 오후에 반휴를 쓴 터였다. 일요일 정오 엠바고가 걸린 어느 교수의 연구성과를 1시간 남짓 살폈다.
오후 5시 58분께 도착한 회사에서 위원장과 사무처장 선배를 만났다. 시차를 두고 도착한 집행부 선배들까지 함께 모여 임단협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밤 9시 40분께 치킨과 피자로 저녁을 먹었다.
슬슬 낮가림하는 절벽이 딸의 취침 모습을 영상통화로 확인했다. 결혼 후 처음 외박하는 기분이 어떨지 묻는 아내에게 제대로 답하지 못해 분했다.

**당번표 빈칸을 채우는 방법,
주말용 기사를 텐트에서 쓴다!**

서명곤 조합원: 토요 주간 당번이 펑크 나 올상인 사무처장을 위해 잠깐이라도 막자는 생각으로 출근 전 텐트를 지켰다.

이울 비대위원: 당번 펑크 소식에 '땡땡'하러 나와 집에서 쓰러 했던 주말용 기사를 텐트에서 썼다. 공병설 선배가 "또 너냐" 하시며 주스와 쿠키를 쥐여주셨다.

임화섭 공보위 간사: 토요 근무를 마치고 서둘러 텐트로 내려와 교대. 오후부터 새벽까지 긴긴 시간을 보냈다.

늦가을,
모기와
전쟁



**바닥은 따뜻하데 뒷공기는 차다.
지금의 연합뉴스처럼.
11일째 낮, 박영서 강원취재본부 대의원**

혼자 지키려니 조금 외롭긴 한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탓에 정리할 것들이 많아 심심하지는 않다.
텐트농성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텐트 안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과 그 안에 응원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다. 부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이 지극한 회사사랑.
11일째 밤, 서명곤 조합원**

지난 48시간 중 40시간을 회사에서 보냈다. 지극한 회사사랑에 감동.
사무처장이 아침밥 사준다고 일찍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 속았다. 세상에 믿을 사람 진짜 없네.

**시간을 되돌린다면
기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12일째, 김은경 공보위원 + 차지연 조합원**

차지연: 혹시 텐트를 침탈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을 보냈다. 천둥번개 소리가 무섭고 공기는 차서 계속 뒤척였지만 누군가가 이 텐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지 않을 거라고 외치는 의미인 것 같아서 잘 버텼다.
오랜만에 동기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어 좋은 시간이었다. 김은경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기자가 될 것이라 했다. 난 아닌데...^^

김은경: 두고 보자.
담소 나눠주신 임화섭 선배, 자리 데워주신 이지현 선배 간식 보낸 정현이 장용훈 선배. 마음만 보낸 32기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아직은 있어 살 만한가 봅니다.

**이야기꽃 피다 못해 꽃밭!
13일째, 권수현 대의원
김정은 대의원**

- 당번은 권수현, 김정은. 그러나 권혜진, 김보경, 김수진 조합원까지 모여 텐트 안은 북적북적~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몇몇 보직자들도 들러 응원과 격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훈훈한 텐트!
- 잠깐 놀러왔다가 치킨 먹고 간 조합원은 치킨집 번호를 공유. K치킨은 허니콤보가 꿀맛, B치킨은 후라이드가 최고라는 꿀팁.
- 골뱅이 풀면 배달오신 분이 응원해주심. 맛도 좋다!



**텐트는 동료애와 사랑을 신고~
14일째, 김승욱 대의원**

위원장 선배가 밤새 같이 있어주신 덕에 사람 온기 느끼며 숙면 취할 수 있었습니다.
피자 시켜주신 스포츠부 장현구 선배, 회식 후 들려준 문화부 정아란씨 특별히 고맙습니다.
학교 졸업 후 처음 써보는 소음방지용 귀마개 유용하네요! 없으면 새벽에 잠 설칠 뻔했습니다.



**일지엔 용건만 간단히!
고동욱 조사부장**

- 19:30 이울 선배가 잠시 들려 위문품(과자) 주고 갔다
- 21:30 백나리 선배 들려 한 시간가량 수다

**엄마 어디가!
15일째, 김지연 사무처장
김보경 대의원**

김지연: 오늘 회사에서 당직이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 두었던 일곱 살 큰아이가 할머니 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대단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묻는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당연히 회사지~" 싸늘한 표정. "회사 아닌 것 같은데요." 아뵐사. 내 뒤로 보이는 배경은 너무도 분명한 텐트! 그 옆에서 깔깔 웃으며 "응, 너네 엄마 지금 회사 아니야~"하고 지나가는 분들, 선배들 맞습니까와??

김보경: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남편도 회식. 어쩔 수 없이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 4살짜리 아들 데리고 텐트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낮을 가리는데 지연 선배의 재롱(?)에 금방 텐트에 적응을 하더군요. 셋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 회식 끝나고 데리러 온 남편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지연 선배와 둘이 누워 있는데 수습 때 패딩 입고 동기랑 기자실에 누워 수다 떨던 생각이 나네요.
별 것 아닌 줄 알았는데 텐트 농성 심진 않았습니다. 다음 텐트 지키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